'한국선수들 메이저리그에 흔적을 남기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스포츠 온 어스' 특집기사 통해 빅리그 진출 선수들 집중조명

최근 몇 년간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올 시즌 역대 가장 많은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스포츠 온 어스'는 22일(한국시간)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흔적을 남기다'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빅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을 집중조명했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가장 많은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부터 가장 최근 미국에 진출한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까지 이들의 활약과 함께 한국 야구의 높아진 위상을 소개했다.

특집기사에 따르면 추신수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선수(MVP)상을 차지한 뒤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고교 시절 야구에만 전념한 추신수는 야구 경기가 낯설지 않았지만 문화와 음식, 언어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 새로웠다.

추신수는 "7년간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야구뿐 아니라 동료, 코치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등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최근 출신 선수들은 이전과 달리 메이저리그에 직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무대를 밟고 있다.

LA 다저스에 입단한 류현진(29)의 성공에 이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29)의 맹활약은 메이저리그가 KBO리그 선수들에게 본격적으로 문을 활짝 연 계기가 됐다.

강정호는 지난 시즌 막판에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 도중 심각한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됐지만 그 전까지 12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7와 함께 OPS(출루율+장타율) 0.816을 기록했다.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큰 역할을 하며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최근 박병호(30·미네소트 트윈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물론 KBO리그와 일본프로야구를 호령한 이대호와 오승환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이어졌다.

이들이 강정호처럼 메이저리그에서 불이 붙는다면 한국은 쿠바처럼 될 수 있다. 아마야구 최강 쿠바는 메이저리그의 대표적인 선수 공급지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야구를 바라보는 메이저리그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한 내셔널리그 스카우트는 지금도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8~10개 구단이 KBO리그를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시즌 박병호와 강정호 등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경우 한국 선수들의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KBO리그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메이저리그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투수력 측면에서는 일본프로야구 NPB리그보다 깊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KBO리그에서 10시즌 동안 4할이 넘는 출루율을 기록한 김현수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23타수 무안타로 고전했지만 최근에는 19타수 8안타를 기록하며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박병호는 시범경기에서 만루홈런을 포함해 3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팀에 적응한 모습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스포츠 온 어스'는 22일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흔적을 남기다'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빅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을 집중조명했다

메이저리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이대호에 대해서도 나이와 덩치가 호기심과 함께 의구심을 주지만 정교한 타격에 장타력도 갖추고 있어 개막 로스터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승환에 대해서도 '끝판대장'이라는 별명과 함께 불펜에서의 역할 뿐 아니라 '특급 마무리' 트레버 로젠탈에게 휴식이 필요할 경우 마무리로도 등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소개도 빠지지 않았다.

/김민근기자

내년 6월 22일 개막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조직위 공식 출범

2017년 6월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무주에서 열리는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이 22일 르윈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총재, 황정수 무주군수 등의 다양한 곳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창립총회와 2부 축하리셉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에서는 조직위원회 경과보고 및 대회준비 계획 보고, 정관심의, 위원장 선출 및 임원선임 등이 이루어 졌고 2부에서는 주요내빈들의 인사축사환영사, 업무협약식, 성공기원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연택 2017대회유치위원장이 공동으로 선출됐고, 명예위원장으로는 이대순 세계태권도연맹 명예부총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명예회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각각 추대됐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세계인의 가슴속에 아로 새겨져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도움과 이익이 되도록 우리 모두 참되고 실속 있게 힘써 행하는 무실역행으로 정진해 나가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연택 유치위원장은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라북도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 전 세계 태권도인의 고향으로 인식되어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테리, 아랑이라는 마스코트와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 되는 지구촌'이라는 슬로건도 발표했다.

/김민근기자

종합 4위 달성 동계체전 전북 선수단 격려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8년 연속 종합 4위를 달성한 입상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회가 22일 전북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각지에서 개최 되었던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17개, 동메달17개를 획득하며 경기, 서울, 강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날 격려회에는 전라북도체육회장인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배 도의장, 김승환 도교육감을 포함한 내외빈 및 선수단 16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하진 도지사는 치사에서 "이번 동계체전에서 전북체육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해 도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준 선수단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시설 확충 등 훈련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익산시청 권영준, 국제그랑프리펜싱대회 동매달

익산시청 펜싱 국가대표 권영준 선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6 헝가리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남자 에뻬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권영준 선수는 64강에서 체코 루브스 마틴 선수와 접전을 벌이며 9-6으로 승리하고 32강에서는 국가대표 동료 정승화(부산광역시청) 선수를 15-6으로 제압하며 16강에 진출했다. 16강에서는 러시아 비다 세르게이 선수를 15-9로 승리하고 8강에서는 네덜란드 버바윌렌 바스 선수와 접전을 벌이며 7-6으로 승리해 준결승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준결승에서는 이탈리아 가로꼬 엔리코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동메달로 권 선수는 세계 랭킹 18위에 올라 남자 에뻬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에 성큼 다가섰다. 권 선수는 남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올림픽대회에 꼭 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이천수 은퇴식 24일 레바논전 하프타임 때 개최

지난 시즌 그라운드를 떠난 '풍운아' 이천수(35)가 국가대표 은퇴식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4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G조 7차전 레바논과의 경기 하프타임 행사로 이천수의 은퇴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천수는 부평고 시절부터 발재간과 스피드, 킥력을 겸비해 전국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2000년 A매치에 데뷔해 '빌레니엄 특급'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2002년 프로축구 울산 현대에 입단한 이천수는 K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신인상을 휩쓸었다. 이듬해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무대를 경험했다. 지난해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선수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민근 기자